
'23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2023.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5. 4.(목) 10:00~11:35
-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8층 간담회장2
- ◆ 참석현황 :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6명
- ◆ 안 건 : 총 3건
 - 지하철역명 명칭 개정 1건, 도로시설명 명칭 제정 2건,

<간 사>

- 인사말
- 참석위원 소개

<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오늘 안건은 지하철역명 개정 1건, 교량명 제정 1건, 터널명 제정 1건 총 세 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는 오늘 상정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안건보고

<부위원장>

-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서, 심의 진행방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자치구관계자와 시의원이 회의실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시의원 의견을 듣고 자치구 관계자분들의 질의응답을 기회를 가지고 위원간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역명 개정안 1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철도운영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1. 지하철역명 개정(안)

제1호 안건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역명 개정(안)

<도시철도운영팀장>

- 해당 안건은 2016년도에 그 강동구에서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역명 개정으로 인한 소요비용에 대해 강동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연이 되어왔다가, 금년 3월 중에 협의가 돼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 5호선 강동역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위치한 그 법정동명 중에 유일하게 강동역만 동명을 사용하지 않는 역으로 자치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역명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찬성의견이 60.7%로 과반수를 넘어서 역명 개정을 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 예, 도시철도운영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000 시의원의 의견진술이 있겠습니다.

<0 0 0 시의원>

- 의견진술

<부위원장>

-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강동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 예, 그 지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최근에 지명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때 설문조사는 단순히 찬반에 해당하는 그런 거였습니까?
기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든가, 그런 설문 유형은 아니었나 보네요?

<강동구 교통행정과장>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여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 0 0 위원>

○ 예, 알겠습니다.

<0 0 0 위원>

○ 의견수렴이 2015년4월인가요?

<강동구 교통행정과장>

○ 예.

<0 0 0 위원>

○ 지금 23년인데, 8년 지났는데.

<강동구 교통행정과장>

○ 저희가 과거에 2014년부터 이 안건이 시작됐었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 결과고, 뭐 8년이 흘렀지만 어떤 지역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0 0 위원>

○ 그 역 이름에 동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없어진 성내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도권 23개의 역에서 5개 역만 동이 들어가네요. 근데 강동구가 많아요. 길동역, 상일동역. 신설동, 신목동, 창동.그 외에는 동이 안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동명인데. 지금 그래서 혹시 예전 2호선 성내역 때문에, 성내동이라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런가. 성내역이 더 편하지, 성내동 하면 세 음절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강동구 교통행정과장>

○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성내동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0 0 0 위원>

○ 그렇다면 이해는 돼요.

<도시철도운영팀장>

○ 과거에 구청에 올라올 때는, 성내 괄호하고 동 괄호 달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니까 성내역이든 성내동역이든,

<강동구 교통행정과장>

○ ‘무방하다.’ 라는, 예.

<0 0 0 위원>

○ 예, 일반적인 언어 사용습관은, ‘동이 들어가면 어색하다.’ 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0 0 0 위원>

○ 3음절이 좋습니다. 성내역이라고 하는 게 훨씬 기억하기도 편하고

<0 0 0 위원>

○ 혹시 예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동역이라는 이름
을 처음 붙인 거요, 그거는 성내역이 기존에 있어서 붙인 건가요?

<강동구 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0 0 0 위원>

○ 아, 성내역이 있어서?

<강동구 교통행정과장>

○ 예. 성내역이 그때 당시에는, 호선이 다르지만 현존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위원장>

○ 다른 질문이 없으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5호선 역명개정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0 0 위원>

○ 성내역, 이렇게 3음절로 하는 데 큰 무리가 있을까요? ‘성내동이라는 게 아무래도 낱말이 낯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위원장>

○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성내역이 송파구에 있던 부분이, 잠실나루로 바뀌긴 했지만,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차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성내동역으로 제안했던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한번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0 0 0 위원>

○ 저는 일상생활에 관점을 두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이 이야기할 때에도 가능하면 딱 3음절로 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게,

<부위원장>

○ 근데 또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실나루를 성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잠실나루 말고 잠실새내역도

<0 0 0 위원>

○ 헛갈리죠?

<부위원장>

○ 예. 잠실새내역이 아니고, 신천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을 붙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0 0 0 위원>

- 저도 그 생각인데요. 이 성내역이라는 게 지금 다른 역으로 바뀐 지가 13년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헛갈리는 분은 많으실 것 같아요.

<0 0 0 위원>

-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미래 세대에게 조금 더 편한 이름이 낫지 않을까해요. 젊은 사람들 약 10년, 20년 후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거 하면, 저는 성내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합니다만.

<0 0 0 위원>

-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나는 성내동 사니까 성내동역이 좋아.’ 라고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지하철역에서 ‘우리도 바꿔줘.’ 그럴 일은 없을까요?

<부위원장>

- 사실 역명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자치구나 자치구 지명위원회, 관련 과에서도 역명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지명위원회서 논의하게 된것이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 예, 이 구의 이름을 한 역은 없는 걸로, 다른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0 0 위원>

- 저는 이런 사례가 많아질까 봐, 그게 우려되긴 해요.

<부위원장>

- 그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명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런 우려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 그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역명을 바꾼다는 게, 뭐 예산도 들어가지만 뭐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지금 말씀 나오신 거 여기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보면 성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천호동하고 길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대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또 천호역이랑 또 길동역이 또 있어요.

<부위원장>

- 이 과거에 성내역이 있었으니까,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헛갈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성내동역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네요.
- 심의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성내동역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예, 도로계획과장은, 교량명 제정안과 터널명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가칭)고덕대교」 교량명 제정(안)

<도로계획과장>

-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안건은 2건인데요.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교량 명칭과 그 하남시와 강동구를 잇는 지하터널 명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 사업명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공사 14공구에 해당합니다. 위치는 강동구 고덕동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고요. 총연장 1,725m에 금년 12월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 명칭 33번째 교량 명칭에 대해서, 우선 역사적 상징성과 교량 설계 모티브였던 고덕, 그리고 지명 결정 기본원칙에 혼선을 방지할 위한 내용, 그리고 지역 정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국책사업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저희는 ‘고덕대교로 반드시 돼야 된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 상징성입니다. 설계 때부터 이 태종 이방원이 이양중이라는 고려 충신의 어떤 정절을 충절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고덕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컨셉 자체가 처음부터 고덕대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세종 54년의 생애 업적을 기려서 경간장을 540m로 했고요. 세종이 정사를 보실 때 쓰시던 그 익선관이라고 있습니다. 익선관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날개와 같은 모양새를 지어서, 이렇게 2개의 사장교, 2주탑 사장교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이 작품이 당선이 돼서 14공구에 고덕대교의 명칭을 가지고 공사가 2016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명의 지명을 결정하는 기본원칙입니다.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명에 구리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이용자들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지역에 정주하는 주민들이 그간에 계속 고덕대교 명칭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강동구 구의회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고덕대교 명칭으로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결의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공사를 해와서 한 7년 정도 그 동남로의 주변에 한 5만 가구가, 환경과 소음 피해를 그간에 감내해왔던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고덕강일지구에서 이 건설비용의 15%인 53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저희들이 이 사유를 들어서, 고덕대교로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동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는데, 2안, 3안, 4안들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구리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고구려라는 대교는, 고구려의 어떤 특정한 그런 지역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고덕대교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3호 안건

「(가칭)방아다리터널」 터널명 제정(안)

도로계획과장

- 두 번째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공구에 강동구에서 하남시 초이동까지 이어지는 터널이 있습니다. 지하터널 명칭을 강동구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고덕터널로, 또 고덕대교와 고덕터널로 일관되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 시의원의 의견 진술이 있겠습니다.

<0 0 0 시의원>

○ 의견제시

<부위원장>

○ 더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치구 질의응답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직접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 구민과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고덕대교를 주장하실 텐데, 특히 다리 같은 경우는 2개의 이 자치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구리시는 또 어제 신문 보니까, 10만 명 서명운동을 했다고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협의 과정이 있으셨나 해서요.

<강동구 자치행정과장>

○ 현재까지 구리시하고 강동구하고 협의는 따로 없었습니다.

<0 0 0 위원>

○ 두 지역이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강동구 자치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교량명 제정 건과 터널명 제정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0 0 위원>

- 근데 저 제가 생각한 거는 사담처럼 들으시면, 우리나라에 이 다리라든가 이런 지명을 그 붙이는 그런게 좀 아쉬워요. 존에프케네디 공항처럼 우리도 이런식으로 지명을 지을 수 있는데, 광개토태왕이라던가.

<부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떠신가요?

<0 0 0 위원>

- 만약 지명을 미래지향적으로 붙인다면, 뭐 광개토태왕 이런 건 미래지향이라기보단 애국주의로 가는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0 0 0 위원>

- 방아다리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역에도 같은 이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또 쓰죠

<다수 위원>

- 예, 저도 들어봤어요.

<부위원장>

-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공항 같은 경우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름 역사적 인물로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내주시면 지명을 붙이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 예, 다리는 2개의 지역을 걸쳐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0 0 0 위원>

- 그리고 아까 미국의 그런 사례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분 이름을 다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축적이 된 부분이고, 그럼 우리도 이제

부터 그런 고민을 해서 축적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다음 기회에 아까 국장님 말씀이 그런 걸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저희가 여기서 제안을 해서 그런 붙이는 기준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고민하는, 이름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0 0 0 위원>

○ 도로공사에서 지명을 심의할 때 양쪽에 구리시하고 강동구하고, 같이 의견을 논의하겠죠?

<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의견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0 0 0 위원>

○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향후에 함께 토론하게 된다면 자료 만드실 때 그 국내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의 이름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지명을 정하는지, 그런 기준을 조금 더 사례도 제시해주시면, 논의할 때 조금 더 다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잘 새겨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 두 개의 지점을 잇는 이런 인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고덕대교로 우리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지자체하고의 합의를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전북 군산시하고 충남 서천군의 대교명이 최종적으로는 동백대교가 됐어요. 동백꽃이 두 지역의 시화, 군화 이라서 그 상징

하는 식물이 동백이라는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동백대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리하고 강동구 사이에서, 뭔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0 0 위원>

○ 그쵸.

<0 0 0 위원>

○ 그러니까 상당히 이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 지점을 연결하는 인공 시설물이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국가지명 위로 올라가든 도로공사에서 판단할 때에도 이게 점점 고민스러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지금은 역사문화적인 배경 하에 그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서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자연 그 지형지물에 고유지명 앞부분에서 고덕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명을 명명할 때 그 고유지명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고덕터널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0 0 0 위원>

○ 다리는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대안이.

<0 0 0 위원>

○ 다른 제 3의 대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0 0 0 위원>

○ 저는 고덕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그 연원이 오래되니까, 그런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 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0 0 0 위원>

○ 예, 아름다운 어떤,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 제3의 안이 있다면 제일 좋겠죠.

<0 0 0 위원>

○ 지금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교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게 4안까지 있는데, 1안인 고덕대교 말고는, 아니 현실적으로 2안, 3안, 4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 대안이 없어요.

<0 0 0 위원>

○ 그니까 1안밖에는 없어요, 제 생각에도. 이 중에서 뽑으면 저는 1안이 맞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고덕에 고덕이 꽤 오래된 연원을 찾아서 역사적인 부분을 부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정된 인력과 시간에 이거 하시는 분 이것까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고덕이라는 옛날 명칭이 유래라든가 그런거를 하나하나 공무원분들이 찾아보고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위원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주고, 이 자료 혹시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느냐하면서.

근데 그럴지 않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막 급하게 만드시다 보니까, 시간도 많지도 않고 그 분야에 전문성도 없으신데, 안타까워요. 그 위원회가 있으면 그걸 활용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부위원장>

○ 예, 맞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역할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해주셨는데요. 고덕대교에 대해서 2안, 3안, 4안에 대해서는 더 말씀이 없으셔서, 이쯤에서 한 번 대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안 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고, 1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나요?

<0 0 0 위원>

○ 만장일치네.

<0 0 0 위원>

○ 대안이 없어요.

<부위원장>

○ 예, 현장은 만장일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터널에 대해서 대체로 고덕터널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그러면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가칭 고덕대교 교량명 제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고덕대교로 결정하도록 하고요. 터널에 대해서는 고덕터널로 결정을 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